

CEO FOCUS: 기업인 의견 조사

# 지역기업인 100인이 바라는 2023년 부산

2023. 1.

# 〈조사개요〉

## 1. 조사명

- 지역기업인 100인이 바라는 2023년 부산

## 2. 조사목적

- 기업인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재도약을 위한 과제 도출

## 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기업인 250명(조사 응답 100명)

## 4. 조사방법

- 조사표 기반 설문조사(FAX, 이메일 등을 활용한 직접조사)

## 5. 조사내용

-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
- 2023년 가장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지역 현안
- 2023년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산업 트렌드
-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도나 규제 개선과제

## 6. 조사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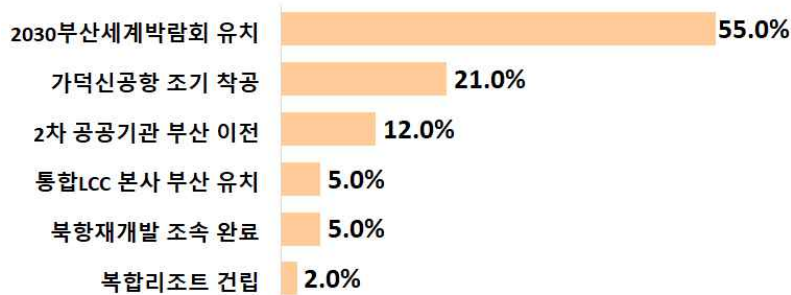
- 2023. 1. 10. ~ 1. 18.

## 1. 2023년 가장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지역 현안

- 2023년 지역기업인의 새해 소망 1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
- 통합LCC 본사유치, 복합리조트 건립 등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한 기업인 관심 유도 필요

- 2023년 새해 가장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(55.0%),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(21.0%),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(12.0%), 북항재개발 조속 완료(5.0%),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(5.0%), 복합리조트 건립(2.0%) 순으로 집계
  - 2023년은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, 지역기업인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열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임
  - 또한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지역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이라고 평가하는 기업인도 많음
  - 한편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, 복합리조트 건립 등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함, 향후 이들 현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 필요

2023년 가장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지역 현안



## 2. 2023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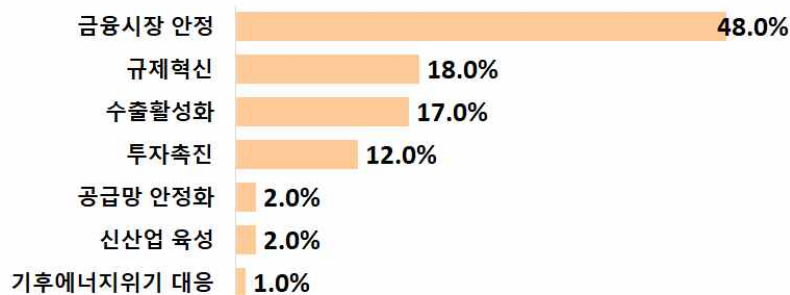
- 부산 기업인,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‘금융시장 안정화’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
- 신산업 육성, 공급망 안정화, 기후에너지위기 대응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음

- 지역기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묻은 결과, 금융시장 안정화가 48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

이어 규제혁신(18.0%), 수출활성화(17.0%), 투자촉진(12.0%), 공급망 안정화(2.0%), 신산업 육성(2.0%) 기후·에너지위기 대응(1.0%) 순

- 최근 금리인상과 환율 불안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기업인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이어 규제혁신, 수출활성화, 투자촉진 등 기업중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인도 상당수 확인되었음

2023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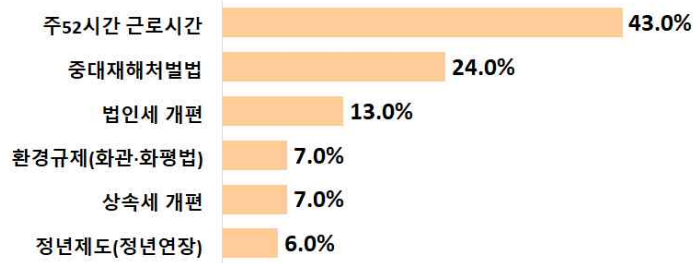
### 3. 2023년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도나 규제

- 지역기업인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
- 이어 시행 1주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

○ 2023년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제도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물은 결과,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43.0%로 가장 많은 응답 차지함,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24.0%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, 법인세 개편(13.0%), 환경규제(7.0%), 상속세 개편(7.0%), 정년제도(6.0%) 순으로 나타남

-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업무비효율 증가, 경영활동 위축 등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음,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 시급한 과제임
- 이 외에도 법인세 개편,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

2023년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도나 규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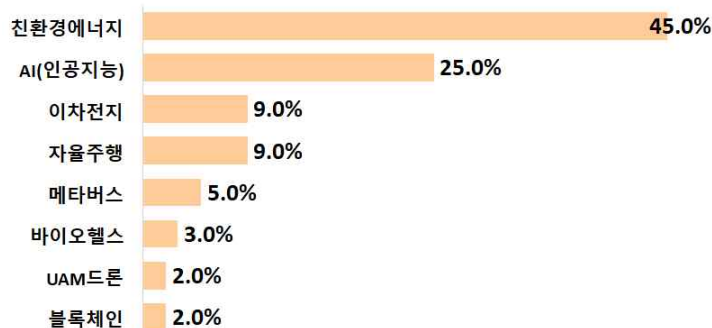
#### 4.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산업 트렌드

- 지역기업인이 선택한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산업 트렌드는 ‘친환경 에너지’
-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, 블록체인에 대한 기업인의 관심도는 낮았음

○ 2023년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전체 응답 중 45.0%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, 이어 AI(25.0%), 자율주행(9.0%), 이차전지(9.0%), 메타버스(5.0%), 바이오헬스(3.0%), UAM·드론(2.0%), 블록체인(2.0%) 순

- 최근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로 기업 현장에서는 친환경이 경영트렌드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,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가장 주목하는 것으로 판단됨
- AI나 자율주행, 이차전지 등 기업과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최신 기술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
- 반면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나 UAM·드론 등에 대한 관심은 낮았으며, 부산은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특구임에도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는 지역기업인은 소수였음

2023년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산업 트렌드



## 5. 2023년 새해 부산경제를 위한 덕담 한마디

- 기업인의 새해 덕담을 키워드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1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
- 이어 주로 경제, 부산(도시), 기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기원하는 키워드가 많았음

### ○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

- “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을 기원합니다.”
- 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한마음이 되어 경제난관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, 살고 싶은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”
- 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, 가덕신공항을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부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”

### ○ 경제위기 극복 기원

- “금리안정과 각 산업분야 수출활성화로 엔데믹을 극복하길 기원합니다.”
- “2023년 새해에는 규제 완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재도약하기를 바랍니다.”
- “경제난관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은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. ‘부산경제가 사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것’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### ○ 부산(도시) 활력 제고

- “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, 지역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”
- “제조 대기업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,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상공인의 협력 강화를 요청합니다.”
- “부산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.”

### ○ 기업 지원과 규제 개선

- “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,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선하여 미래 산업에 투자촉진 유도가 필요합니다.”
- “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선이 시급합니다. 중소기업은 나라의 근간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기원합니다.”
- “기업이 잘 운영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.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부산상의회서 잘 수렴하여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.”